

## 심부전의 악화로 장기 신대체 요법을 시행하게 된 환자들의 특성 및 생존율 분석

성균관의대 마산삼성병원 내과

조 성 · 김성록 · 이유지

### Characteristic and Survival of Dialysis Patients Due to Refractory Heart Failure

Seong Cho, Sung Rok Kim, Yoo Jee Lee

Sungkyunkwan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Masan Samsung Hospital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서 론 :** 심부전 악화 환자에서 크레아티닌의 증가는 높은 사망율과 불량한 예후를 나타내는 인자이다.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수분제거요법으로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을 하게 되는데 단기간의 증상 호전은 있으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한다. 본원에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불응성 심부전의 악화로 투석치료를 시작한 환자들을 분석하여 시작 당시의 임상증상, 생존율과 이에 연관된 인자를 조사하였다.

**방 법 :** 2002-2009년 사이에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진행성 요독증, 무뇨 등으로 의뢰 되어 투석 치료를 시작 하였던 불응성 심부전을 가진 신부전환자 38명을 추적하여 연령, 성별, 원인 심질환, 허혈성심질환의 병력, 뇌혈관계 질환의 병력, 말초동맥의 질환력, 투석을 시작하게 된 원인, 투석 방법, 장기 생존율을 분석 하였다.

**결 과 :** 평균연령은 69.42±9.44 (43-86)세 였다. 남녀비는 20/18, 복막 대 혈액투석 비는 31/7이었다. 원인 심질환은 허혈성 13예 비허혈성 25예 (확장성 심병증 10예, 판막성 3예, 이완성 심부전 10예, 기타 2예)였다. 당뇨 대 비당뇨는 18/20명, 허혈성 심질환은 34.2%, 뇌혈관 질환은 10.5%에서 동반되었다. 말초혈관질환의 동반은 없었다. 수분 과잉 특히 폐부종이 81.6%, 전신쇄약감등 요독증세로 18.4%에서 투석을 시작 하였다. 평균 생존율은 25.26±4.37달 이었다. 21명이 사망하였는데 10명은 심부전의 악화로, 7명은 급사로 2명은 종양, 2명은 폐혈증 으로 사망하였다. 생존군과 사망군 사이에서 허혈성 심질환 등의 동반 유무가 차이가 있었고 ( $p < 0.05$ ), 연령, 성별, 당뇨병의 존재 등 다른 인자는 상관이 없었다.

**결 론 :**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심부전 환자에서 투석 요법은 상당히 높은 사망률을 나타낸다. 특히 투석을 시작하게 된 초기에 심부전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 가장 높으므로 초기에 더 강조된 투석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시간이 경과 할수록 돌연사가 많으므로 돌연사를 막는 여러 방법이 강구 되어야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 심부전, 불응성, 투석

Congestive heart failure, Refractory, Dialysis